

회원사 소식



대한전선, 증폭기, 망감시시스템, 수동소자 국산화실현

- 기술자립, 수출증대 기대 -

한국전자통신연구소(ETRI)에서 주관하는 광 CATV 시스템의 기술 전수업체로 이미 선정된 바 있는 대한전선(주)(兪彩濬)이 '93년 8월 망감시기능을 포함한 동축 CATV용 쌍방향 증폭기 및 수동소자를 자체 개발함으로써 뉴 미디어 산업의 전기를 마련했다.

이 제품은 지난 10월 13일 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플라자 호텔에서 [93 뉴미디어 방송부문 대상]을 수상하였다.

현재 국내에는 단방향 및 쌍방향 기능을 가진 증폭기가 일부 중소기업체에서 제작중이나 고기능을 가진 증폭기는 이번이 처음이다.

5-450MHz의 고출력으로 광대역 전송이 가능하고 전송 동작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이 제품은 각 모듈의 개별적인 착탈이 가능한 플러그 인(Plug in)방식에 망감시시스템에서 감시해야 되는 각 데이터의 상태를 증폭기 내부에서도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 동작상태 디스플레이 보드내장으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단가가 절감되는것이 특징이다.

특히 AGC/ASC기능을 가지고 있어 안정된 전원공급이 용이하고 간선분기 배선의 케이블 손실, 분배기(Splitter), 분기기(Tap-off) 등의 손실에 의한 신호감쇄를 보상, 레벨

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폭기 모듈마다 주파수 편차를 보정할 수 있는 회로를 추가했다.

이번 대한전선의 자체개발로 그동안 일본, 미국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국내 CATV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한국형 CATV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련기기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경쟁력 확보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. 특히 기기 및 부품국산화로 CATV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.

따라서 대한전선은 이미 방송국 망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

註)用語解説

- 1) AGC(Automatic Gain Control) : 케이블이 온도에 따라 손실이 생길 때 이 손실을 자동으로 보상해주기 위한 회로
- 2) ASC(Automatic Slope Control) : 온도변화에 따른 신호의 기울기를 자동으로 보상해 주는 회로